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배포일시	2016. 12. 13.(화) 총 3매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국건위지원팀	담 당 자	• 팀장 조세기, 사무관 홍성준 • ☎ (02)397-5504, 5506
보 도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미래건축물, 에너지 생태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세 번째 「미래건축포럼」 개최

최근 몇 년 중 가장 덥다는 2026년 어느 날 여름 오후. A씨는 창문을 닫고 안심하고 에어컨을 켜다.
 산업용 전기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지만 블랙아웃을 우려하며 전력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많은 집에서 전기에너지 생산과 저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A씨 집에서 공급 받고 있는 외부전력은 “0”이기 때문이다.

-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국건위”)는 건축 분야의 미래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세 번째 「미래건축포럼」을 14일(수) 오후 2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개최한다.
- 미래건축포럼은 우리가 사는 생활공간의 미래를 상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기 위하여 국건위가 마련한 장으로,
 - 지난 두 차례의 포럼에서는 이동 수단 변화가 건축·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생활 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 이번 세 번째 포럼에서는 미래의 건축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활용하여 생긴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집중하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오는 미래 건축 산업과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 이날 이에스에스(ESS) 적용에 따른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한국전력의 배성환 신성장기술본부장과 엘지(LG) 화학의 임인희 가정용ESS 팀장이 발제를 한다.
 - 이후 건축과 에너지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에너지기술과 건축분야의 융합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변화와 건축 산업이 갖게 될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번 포럼 또한 지난 두 번의 포럼과 같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제해성 국건위 위원장은 “지난 10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태양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솔라루프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파워월을 결합하여 가정용 에너지의 새로운 상품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미래에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건축물이 가치 높게 평가받을 것이다. 우리 건축 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를 건축물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p>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팀 홍성준 사무관(☎ 02-397-5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

미래건축포럼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미래건축

포럼사회

안용환 | 한양대학교 ERICA 교수

토론진행

김도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주제발표

배성환 | 한국전력공사 신성장기술본부장 CTO

임인희 | LG화학 부장, 가정용 ESS팀장

패널위원

함일한 |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상무

이명주 | 명지대학교 교수

신지웅 | EAN 테크놀로지 대표

최용의 | 삼우건축 상무

이병호 | 한국감정원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사

14:05~14:10 축사

14:15~14:35 주제발표1

14:35~14:55 주제발표2

15:00~16:10 패널 및 발표자 토론

16:10~16:30 플로어 토론

3차

2016. 12. 14.(수)

14:00~16:30

용산 전쟁기념관 1층 이병형홀

주최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관
대한건축학회